

2026년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 사업계획서



사단법인 필암서원산양회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 취지문

과거시험은 중국 수나라 때 창안해 청나라 말기인 1905년까지 오래도록 유지된 독특한 인재 등용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이 제도를 처음 받아들였고, 조선왕조가 1894년 폐지할 때까지 실력을 기준으로 관료를 뽑는 과거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라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은 5백 년 왕조를 지탱해 올 수 있었지만, 말기에 이르러 세도정치와 당파싸움으로 매관매직이 성행해 망국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제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중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가 토론과 논술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16세기 장성 출신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이 급제하셨던 과거시험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호남의 대표적 문향인 '문불여장성'의 이름을 내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축하하는 인문학 축전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어도, 우리 고전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가르침은 소중한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과거시험 재현'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호남 유일의 문묘 배향 학자인 하서 선생의 삶과 정신세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학문연구 전통이 호남을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K-선비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역민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일

(사)필암서원산양회 이사장 김재수

|| 목 차 ||

□ 과거시험 재현 사업계획

1. 문불여장성과 하서 김인후	3
2. 과거시험 재현행사 개요	5
3. 출제-시험감독-채점관리 세부지침	9
4. 성적 우수자 시상 및 축하 행사	12
5. 과거제도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	14
6. 홍보 및 참여 확대 전략	17
7. 기대효과 및 향후발전방안	17
8. 소요예산 확보 상황	18
9. 행사 준비 및 추진 일정(안)	19
10. 조직도(안)	21

□ 참고자료

1. 조선시대 과거시험 제도
2. 하서 김인후 선생과 과거시험
3. 과거시험의 정점 전시(殿試) 책문(策問)
4. 칠언율시(七言律詩)
5. 강독(講讀)
6. 전국 지자체가 추진중인 과거시험 재현 사례
7. 기타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 사업계획서

1. 문불여장성과 하서 김인후

1-1 장성의 인문학적 배경

- 예향(藝鄉)이라 칭하는 광주·전남에서 장성은 독특하게 학문과 문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꾸준히 맥을 이어온 문향(文鄉)
 - 흥선대원군이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이라고 높이 평가
-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1510-1560) 배출이 큰 영향
 - 도학·절의·문장을 겸비했다고 평가받아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학자, 1,600여 首의 詩를 남긴 시인, 인종의 스승
- 하서 선생과 고암 양자징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장성 필암서원은 호남을 대표하는 사액서원, 국가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활성화
 - 유물전시관·집성관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운영, 하서 일대기 발간 등

1-2 하서 선생과 과거시험

- 하서 김인후는 다섯 살에 벌써 한시를 지은 신동으로 소문이 났으며, 8세 때 전라감사와 한시 대구(對句)를 즉석에서 주고받아 이름이 났음
- 19세 되던 해인 1528년에 성균관에서 열린 전국 단위 백일장에 나가 칠월 칠석날을 기리는 《칠석부(七夕賦)》란 시를 지어 장원을 차지
- 22세 때 과거시험 小科(진사시)에 입격한 후 성균관에서 퇴계 등과 함께 수학했으며, 31세 때 大科(문과)에 급제해 홍문관·세자시강원 등 요직을 거쳤음
- 각별한 인연을 맺은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의문사로 별세하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벼슬을 던지고 낙향하여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에 몰두하는 우국 지사의 길을 걸어감

- 하서 선생의 인문학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장성에서는 1996년부터 필암서원 주최로 『전국한시백일장』을 매년 개최
 - 2010년부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시백일장을 폐지하고 한글 백일장을 신설하여 2025년까지 23회 행사 개최

- 2025.5.14. 뜻있는 장성 유림 들이 지역 특성을 살린 선비문화 육성 차원에서 과거시험 재현행사를 개최하자는 의견 제시
 - 제안단체 : 장성선비학당 (학장 : 박래호)
 - 건의요지 : 하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발전하는 (사)필암서원 산양회 주도로 2026년부터 개최하자고 주장

- 2025.5.30. 장성군수-필암서원 임원진 간담회에서 선비학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2026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 협의

- 6~12월까지 광주,전주,안동 등 전국 7곳 사례조사, 문헌조사·현지조사·면접조사를 거쳐 적정 타당한 재현 범위 구상
 - 소과는 1798년 光州牧 과거시험(道科) 연구성과에서 벤치마킹
 - 대과 최종 시험인 책문(策問)은 고교생 논술시험 형태로 도입

- 2025.12.29. 장성군 및 산양회 실무진 민관합동회의 개최
 - 첫 행사를 2026.10월 시범 개최하기로 하고 기본 골격에 합의 (보조금 예산 50백만원)

2. 과거시험 재현행사 개요

2-1 행사명 : 2026년 문불여 장성 과거시험 재현행사

-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 “필암서원 과거시험 재현” “하서 김인후 과거시험 재현” 등 복수의 대안 제시
- 2026년 1~2월 중 각계 전문가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숙고 끝에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으로 최종 결정

2-2 기본방향

- 고려 시대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과거시험 제도의 정신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 하고 ‘재현’
 - 지나치게 행사나 복식을 원형에 충실하게 ‘고증’ ‘복원’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문불여장성’ 특유의 인문학 축제답게 유연하게 접근
- 시험은 출제에서 감독, 채점, 성적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의 신뢰를 받도록 공정한 관리와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의
 - 이와는 달리 시상식과 시가 행렬 등 축하 행사는 힘차고 활기 넘치게 진행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
- 2026년 시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시범 사업으로 추진
 - 2028년 이후에는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점차 전국대회로 범위를 확대

- 시 기 : 2026년부터 격년제로 매년 10월 중 2일간 개최

<2026년 행사일정>

- 첫째 날(시험 당일) : 10. 3(토) 10:00~13:00
- 둘째 날(시상, 학술대회, 축하행사) : 10.10(토) 10:00~15:30

- 장 소 : 세계유산 필암서원 일원 (장성군 황룡면 소재)
- 주 최 : 장성군, 문불여장성 과거시험위원회(약칭: 과거위)
- 주 관 : 사단법인 필암서원산양회,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실무위원회
(약칭: 실무위)
- 후 원 :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성균관유도회 전남광주특별시지부,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 과거시험 재현 과목(응시분야)

•조선 시대 과거제도 중 문과를 기준으로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의 시험 과목 중 오늘날까지 계승되어온 3개 응시 분야를 과거시험 재현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선 시행

- ① 강독(聲讀) : 사서삼경 등 동양의 고전을 암기하여 3~4분 내외로 강독하는 시험, 강경(講經)이라고도 함.
- ② 한시(漢詩) : 한시 가운데서도 형식미를 엄격히 따진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제출하는 시험, 백일장 형태의 경연
- ③ 책문(策問) : 大科의 최종 시험단계로서 임금이 직접 출제해 전시(殿試)라고도 함, 현대적으로는 논술경시대회와 유사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한글백일장은 2026.4.25. 장성 지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년과 같이 필암서원 학술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개최, 2028년부터 과거시험으로 통합 개최하는 방안 검토

<2025년 한글백일장 추진 사례>

- 주 관 : 필암서원 학술회
- 참가대상 : 장성군 관내 초등학교 5학년 25명
- 형 식 : 글짓기(산문)
- 주 제 : 하서 김인후 선생 추모

- 참가 자격 : 전남광주특별시 거주 일반인 또는 고등학생
 - 감독, 한시 : 전남광주특별시에 거주하는 일반인(연령 및 학력 제한은 없으며 유림과 한시동호인 참여를 환영)
 - 책문 : 전남광주특별시 거주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 시험 및 채점 방식
 - 한시, 책문 : 소정의 답안지에 칠언율시 한시 또는 책문 형태의 논술문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복수의 채점위원이 점수를 매긴 후 평균점수(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를 산출하여 순위를 결정
 - 감독 : 채점 위원 앞에서 육성으로 고전 감독을 마치면, 복수의 채점위원이 점수를 매긴 후 평균점수(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를 산출하여 순위를 결정

- 응시원서 접수 및 집결
 - **응시원서 접수**
 - 책문에 응시하는 고교생은 2026.8.1.~9.15까지 필암서원산양회 홈페이지(www.piramsanang.or.kr)를 통한 인터넷접수만 인정,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보관한 후 시험 당일 지참
 - 감독, 한시에 응시하는 일반인은 책문에 응시하는 고교생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접수를 해도 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임시접수도 인정함

 - **휴대전화를 이용한 임시접수 요령**
 -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최 측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임시접수, 시험 당일 고사장에서 시험감독관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응시표를 교부 받으면 정식 접수한 것으로 간주 처리함
 - 이용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 010-2601-6641(2026.8.1.~9.15까지 이용 가능)
 - 문자메시지로 남겨야 할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앞 자리 숫자), 주소

• 응시자 집결 및 기타

- 응시자는 시험 당일인 10월3일(토) 09:30까지 장성 필암서원 집성관으로 집결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고사장으로 입실, 10:00부터 시험 시작, 다만 강독 응시자는 필암서원 청절당으로 집결
- 응시표, 주민등록증 이외에 휴대전화, 책자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소지품이나 가방을 가져왔을 경우 시험 시작 전에 고사장 앞쪽으로 한데 모았다가 시험 종료 후 찾아 가야함
- 필기도구는 주최 측에서 일괄 제공하니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됨

○ 성적우수자 발표 및 학술대회, 시상식, 축하행사

- 성적우수자 발표 : 10.8(목) 11:00
 - 입상자 플래카드 게첨 : 필암서원 집성관 벽면
 - 홈페이지 게재 : 장성군청 홈페이지 및 필암서원산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개별통보 : 입상자 휴대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
- 학술대회 : 10.10(토) 10:00~12:00 필암서원 집성관 강당
- 시상식 : 10.10(토) 14:00 필암서원 집성관 강당
- 축하행사 : 10.10(토) 15:00~17:00 가을꽃 축제장, 장성역~장성군청

3. 출제-시험감독-채점관리 세부지침

3-1 출 제

3-1-1. 감독

- 참가대상 : 전남광주특별시 거주 일반인
- 성독대상 : 사서삼경 중에서 본인이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여 암기했다고 판단하는 대목
- 외우기 분량 : 1인당 3~4분 내외(사서삼경)
- 시험요령 : 응시생이 고사 시작 전 응시자료(응시번호, 성명, 감독 대상 내용 및 출처가 기재된 A4 규격 용지) 3부를 채점위원에게 제출하고, 책상 앞에 앉아 육성으로 해당 내용을 외우고 난 후 퇴장
- 채점 및 발표 : 한시, 책문과 달리 고사가 끝난 직후 채점위원이 고사장 내에서 채점을 마치고 성적우수자를 결정하지만, 최종 결과는 10월 8일 다른 응시분야와 함께 발표

3-1-2. 한시

- 참가대상 : 전남광주특별시 거주 일반인
- 형 식 : 칠언율시(七言律詩)
- 시 제 : 시험공고를 할 때 시제 및 압운 5자 중 4자를 발표, 마지막 압운 1자는 시험 당일 고사장에 게시
- 출제위원 : 9.15까지 유림 원로 및 전, 현직 교수로 3명 선발
- 출제방법
 - 시제 및 압운 4자 : 출제위원이 협의하여 시험공고에 포함
 - 마지막 압운 1자 : 출제 후 출제위원장 책임하에 봉인하여 시험 당일까지 보관, 고사장에 게시

3-1-3. 책문

- 참가대상 : 전남광주특별시 거주 고등학생(1~3학년)
- 형 식 : 제한 시간(2시간) 내 논술형 답안 작성
 - 조선시대 문과 시험 최종단계 전시의 『대책』형식 차용
- 출제방향 (예시)
 - ① 지식 탄생과 교육 그리고 권력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구조와 비교하여 다가오는 AI 시대 지식의 권력 구조 변화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서술하시오.
 - ②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중앙의 지원 못지않게 지방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 위 두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 작성
- 출제위원 : 9.15까지 전직 교수 및 고교 교사로 3명을 선발
- 출제방법 : 비공개 장소에 모여 출제 후 출제위원장 책임하에 봉인하여 시험일까지 보관
- 논술지도교사 사전 설명회 개최
 - 기획 의도 : 사실상 지역 최초인 전남광주특별시 고교생 논술경시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겸한 설명회를 개최
 - 시기 : 2026년 5월 ~ 6월 중
 - 장소: 필암서원 집성관
 - 초청 대상: 전남·광주 지역 고등학교 국어·인문사회·동아리 담당 교사 약 50명
 - 핵심 전략 : 장성군 필암서원과 논술 경연의 의미 중점 홍보
 - 세계유산 필암서원 유래 및 하서 김인후 선생의 생애 설명
 - 대입 논술 전형 및 공교육 서술형 평가에 대비한 교육적 역량 강화

3-2 | 시험감독

- 시험 감독은 응시 접수를 마감한 후 응시자 인원 규모에 맞게 고사장을 확정하고 적절한 수의 감독 인원을 배치
- 한시 및 책문의 고사장은 집성관 내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실하되, 시험시간은 동일하게 10:00~12:00까지 120분을 적용
- 감독은 육성으로 고전 내용을 외운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응시 분야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필암서원 청절당으로 격리하여 고사를 치르게 됨
 - 시험감독도 엄격한 통제보다는 응시자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
- 시험 감독이 고사장 내에서 날인한 답안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3-3 | 채점관리

- 감독, 한시 및 책문 분야 응시자 수가 확정되면 응시분야별 3인 이내의 채점위원을 선정하여 시험 당일 소집
- 채점은 채점 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아래 예시와 같은 채점 기준을 정하여 적용
 - * 한시 및 책문 채점 기준(예시)
 - 문제 이해력 30%, 논리 전개력 30%, 대안·통찰 25%, 표현력 15%
 - * 감독 채점 기준(예시)
 - 암기능력 35%, 원문 이해력 30%, 고저장단35%
- 채점 위원 명단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유지 철저
- 블라인드 평가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답안지 상단의 응시자 응시번호와 성명은 시험감독관이 입회한 가운데 채점 위원이 볼 수 없도록 밀봉 처리하여 채점관리 요원에게 인계

4. 성적 우수자 시상 및 축하 행사

4-1 | 성적 우수자 선발

○ 응시분야별 성적우수자 : 3개 분야, 총 18명(시상금 총 870만원)

4-1-1. 강독 : 3명

구 분	인원	훈격	상금(1인)	상금소계	비고
장 원	1명	전남광주특별시장상	100만원	100만원	
우수상	2명	장성군수상	50만원	100만원	
장려상	3명	필암서원장상	30만원	90만원	

4-1-2. 한시 : 6명

구 분	인원	훈격	상금(1인)	상금소계	비고
장 원	1명	전남광주특별시장상	100만원	100만원	
우수상	2명	장성군수상	50만원	100만원	
장려상	3명	필암서원장상	30만원	90만원	

4-1-3. 책문 : 6명

구 분	인원	훈격	상금(1인)	상금소계	비고
장 원	1명	전남광주특별시장상	100만원	100만원	
우수상	2명	장성군수상	50만원	100만원	
장려상	3명	필암서원장상	30만원	90만원	

○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성적우수자 선발 인원을 증감할 수 있음

4-2 | 축하행사 개최

- 시상식 및 작품 발표회 : 시험 종료 후 채점을 거쳐 7일 이내 개최
 - 시상식은 집성관이나 필암서원 전통공원에서 개최 (우천시 문예회관 소공연장)
 - 작품 발표회는 부문별 장원 작품 낭독 및 해설로 구성

○ 과거 급제자 금의환향 시가 행렬 재현

- 어사화를 착용한 책문 장원급제자가 말이나 가마를 타고 선두에서 일행과 함께 행렬하는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재현
- 장성읍 시가지에서 군민환영, 자금심 고취(군악대·취타대·농악대 등)

※ 한글날 연휴 기간 및 가을꽃 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축하 분위기 고조

5. 과거제도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

5-1 | 학술대회 개요

- 행사명 : 문불여장성 과거제도 재조명 학술대회
- 목적 : 우리나라 과거제도의 개요를 먼저 살펴본 다음, 하서 김인후 선생을 비롯한 장성 지방의 과거시험 등과자 및 입격자 현황을 분석
- 일시 : 2026.10.10.(토) 10:00~12:00
- 장소 : 세계유산 필암서원 집성관 강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 주최 : 장성군, 문불여장성 과거시험위원회
- 주관 :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 (사)필암서원산양회
- 참석 대상 : 150명 (대학교수·연구자 등 학계 전문가, 지역 유림 및 문화계 및 교육계 인사, 공직자, 과거시험 수상자 및 가족, 시민 등)

5-2 | 대회 의의 및 상징성

- 장소적 의미
 -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한 세계유산 서원
 - 조선 성리학 전통과 인재 양성의 정신이 살아있는 공간
 - 과거제도의 공과와 현대적 계승을 논하기에 적합한 장소
- 학술적 의미
 - 과거제도는 동아시아 대표적인 공정선발 시스템
 - 현대적 입시 및 취업 시험제도의 역사적 뿌리
 - 능력주의와 공정성 논쟁의 중요한 비교 기준

① 개회식 (15분)

- 국민의례
- 개회사 (산양회 이사장)
- 환영사 (장성군수)
- 축사(장성군의회 의장)

② 주제 발표 (총 60분 / 3명)

[발표 1] (20분)

- 주제 : 과거제도의 연혁과 운영 구조
- 발표 : 송만호 전북대 교수
- 핵심 내용
 - 고려 → 조선의 과거제도 변화
 - 문과 중심 엘리트 선발 구조
 - 시험 방식과 제도적 특징

[발표 2] (20분)

- 주제 : 하서 선생의 과거시험 준비와 급제과정
- 발표 : 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
- 핵심 내용
 - 하서 선생의 유소년기 학습과정
 - 진사시 합격과 성균관 입학
 - 문과시험 급제 및 문묘배향

[발표 3] (20분)

- 주제 : 장성의 과거 등과자 및 입격자 현황
- 발표 : 기호철 사학자
- 핵심 내용
 -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등재자 분석
 - 장성현, 진원현 출신 외 영광 지역 인물

- 인근 지역 대비 분석

③ 종합토론 (40분)

- 좌장 : 김덕진 전)광주교육대 교수
- 주제발표자 : 3명(송만호, 안동교, 기호철)
- 지정토론자 : 2명
 -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유산전문위원
 - 김동하 전) 서영대 교수
- 자유토론자 : 3~4명 (청중 가운데서 희망자)
- 핵심 토론 방향
 - 과거제도의 “공(功)” : 신분을 뛰어넘는 개방적 선발, 국가 중심 능력주의 구현, 학문과 관료제의 연결
 - 과거제도의 “과(過)” : 암기 위주의 시험 구조, 봉당 정치와 결합, 교육의 획일화
 - 현대적 계승·발전 방안
 - 공정성 기반 선발 시스템 강화 : 블라인드 평가 확대, 지역·계층 균형 선발
 - 시험 중심 → 역량 중심 전환 :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실무·창의성 기반 평가
 - 다층 평가 시스템 도입 : 시험 + 면접 + 프로젝트 평가, AI 기반 평가 보조
 - 평생 학습형 인재 선발 : 단일 시험 → 지속 평가 체계, 경력 기반 공직 진입 확대
 - 지역 인재 육성 모델 구축 : 필암서원 중심 인문교육 프로그램, 현대판 서원형 인재 양성 시스템

5-4 | 학술대회 기대효과

- 과거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 인식 확산

- 현대 교육·채용 시스템 개선 방향 제시
- 장성 필암서원의 학술·문화적 위상 강화
- 지역 기반 인문학 중심지 조성

6. 홍보 및 참여 확대 전략

- 지역 언론 기획기사 및 행사 중계로 참여 범 조성
- 전남광주 소재 고등학교에 우수 학생 참여 협조 요청
- 전남광주 소재 향교·서원에 유림 참여 권장 협조 요청
- AI시대에 걸맞게 산양회 홈페이지 및 SNS 활용 홍보 확대
- 4월부터 포스터 제작, 전남광주 고등학교 및 서원·향교에 배포

7.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7-1 기대효과

- 세계유산 필암서원 활용도 제고
- 장성의 인문학 정체성 확보 계기 마련
- 청소년 대상 인문교육 체험 기회 확대
- ‘책문’을 한국 특유의 토론문화로 발전

7-2 중장기 발전방향

- 2028년 이후 급제자에 대한 하서학술재단 장학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전국 단위 행사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 하서 김인후 선생의 후손이 설립한 동아일보, 고려대학교와 협력하여 “필암서원기 전국 고교생 논술경시대회” 창설 검토
- 긴 안목에서 ‘문불여장성 인문학 페스티벌’을 K-선비문화 대표 브랜드로 중점 육성

8. 소요예산 확보상황

- 과거시험 본행사(시험관리, 시상 및 축하행사, 학술대회) 소요사업비 74,564천원은 장성군 보조금 50,000천원과 공익법인 지원금 13,000천원, 산양회 자부담 11,564천원으로 충당
 - 2026 장성군 예산에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S/W사업) 민간 행사사업보조 50,000천원 (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계상
 - 학술대회 개최비용으로 하서학술재단 지원금 5,000천원 확보, 광주전남 공익법인 지원금 8,000천원 협의 중
 - 산양회 자부담 11,564천원은 지방활력연대 잔여재산 기부금 활용

- 본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한글백일장 대회 예산 12,000천원(군비 8,500천원, 필암서원 학술회 자부담 3,500천원)은 별도 확보하여 집행

□ 장성군 세출예산

- 부서 문화교육과
- 정책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 단위 전통문화자원 활용 및 관리
- 세부사업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 (전환사업)
- 편성목 307 민간이전
 - 04 민간행사사업보조
 -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S/W사업) 50,000천원
 - 도 25,000천원
 - 군 25,000천원

□ 산양회 예산

- 세입예산 편성목 보조금 50,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 세출예산 편성목 (당초예산) 용역비 50,000천원
(제1회 추경 예산) 인건비, 시상금, 용역비, 임차료,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으로 세분하여 74,564천원 편성

9. 행사 준비 및 추진 일정(안)

① 사전준비 단계(1~2월)

- 2025.12.29. 장성군-산양회 실무자 연석회의 개최
- 12.30 ~ 12.31 2026년 예산반영 내역 최종 확인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비)
- 1.9 T/F팀 첫 미팅 (김양수, 양성모, 강대익 등)
- 1.10~2.7 김양수 하서도서관장이 자문위원 20명에게 사업계획서 초안 이메일 자료 송부, 검토 후 의견 제시 요청
- 2.9~2.20 사업계획서 수정안 재차 이메일 송부, 2.21까지 1인당 1~2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도록 요청 (4건 접수)
- 2.22.~2.25 장성군 민간사업행사보조 50백만원을 산양회 세출예산에 인건비 등 8개 세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 2.22.~3.5까지 산양회 T/F팀 논의와 산양회 1차 이사회에서 2026년 1차 수정 사업계획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
- 3. 5 산양회 제1차 이사회 수정사업계획 심의 때 이사들, 발언 요지
 - 김병기 이사 : ① 과거시험 성적우수자로 뽑힌 응시생 작품의 수준 향상을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② 학생 급제자의 경우 시상금 이외에 다른 특전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 대학 입시에서의 어드밴티지 등 ③ 후원단체로 “전남대 명예교수회”와 같은 대학 관련 단체 검토 요망
 - 김용하 이사 : ①한시 7언율시를 2시간 내에 작성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니 작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시험시간을 3~4시간으로 늘리는 등 적정 시간 책정 요망

- ② 서원, 향교의 유림 인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니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핸드폰을 통해 임시로 문자 접수한 후 응시 당일 정식 접수하는 방안 등)
- ③ 우리 지역 출신 한시 작가에게 자문하거나 심사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면 좋겠음 (예) 소암 김용숙 종친 등
- 김동하 이사 : ① 2시간 내에 7언율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함 ②시험 시간을 늘리거나 7언율시 대신 5언절구나 7언절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③전남대 재직하는 중국인 교수를 한시 부문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추천함
- 고달석 감사 : ① 광주고를 “향시”의 경우 금년 11월경 개최한다고 함
- 이충원 이사 : 3.13 장성향교 총회 시 과거시험 재현행사 홍보 시간 허용

② 여행연습 단계(3~6월)

- 3.25까지 장성군 문화교육과 실무진과 협의를 거쳐 적정 시점에 장성군에 사업계획서(안)를 제출, 보조금 교부 신청
- 실무위원회 부서별로 팀 구성을 완료하고 실제 추진해 나갈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팀장 책임하에 여행연습 시작

③ 사업실행 단계(7~10월)

④ 평가 및 분석 단계(11~12월)

10. 조직도(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화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과거시험위원회와 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전·현직 공직자 및 유관 단체 종사자가 업무를 분담하는 실무위원회로 이원화

10-1 문불여장성 과거시험위원회 (약칭: 과거위)

- 명예위원장 : 전남광주특별시장,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장,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 상임고문 : 박준영 전)전남도지사, 백승종 전)서강대 교수,
 박래호 필암서원 수석집강
- 공동위원장 : 장성군수, 장성군의회 의장,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위원(예시) :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박호배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장,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이사장, 문영수 성균관유도회전남광주지부 회장,
 박대하 향교재단 전남광주지부 이사장,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무성서원
 원장, 변온섭 전 성균관유도회장, 김영풍 전 전남향교전교협의회장
 김봉수 전남광주문화원연합회장(이상 20인 내외)

10-2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실무위원회 (약칭: 실무위)



총괄운영팀	시험관리팀	행사의전팀	대외협력팀
<p>양성모 (사무회계)김정구</p> <p>김성수(서삼) 손태자 김창봉 (기록관리)김수영 김재선</p> <p>(점검확인) 고달석 김병순 김원영 김성수(해설사)</p>	<p>이상옥 (한시) 박래호 김동하 (책문) 이창운 김수욱 (채점) 김태영 변동강</p> <p>※ 한글백일장 김재완 김성수(목정) 김진산 김영수</p>	<p>김영수</p> <p>이충원</p> <p>임춘임</p> <p>김은숙 정권화 (내빈) 김채림 지은경</p> <p>(복식고증) 오미정</p>	<p>강대익 (학교) 김용하 김승희 김해순 (서원 향교) 이충원 김진산 김형열 (유관기관) 김병기 정경희</p> <p>(언론) 김미경 (광주전남) 김상백 임지현 김효선 (서울)김상일</p>

참 고 자 료

1. 조선시대 과거시험 제도
2. 하서 김인후 선생과 과거시험
3. 과거시험의 정점 전시(殿試) 책문(策問)
4. 칠언율시(七言律詩)
5. 강독(講讀)
6. 전국 지자체가 추진중인 과거시험 재현 사례
7. 기타
 - (1) 필암서원산양회 기본현황
 - (2)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자문위원 의견 (2026.2월)
 - (3) 산양회 1차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2026.3.5.)

1 | 조선시대 과거시험 제도

관료의 등용문, 과거

고려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과거 제도는 조선 시대에도 역시 관료의 등용문이자 출세의 사다리였다. 고려 광종 9년(958) 처음 시행된 이래 조선 고종高宗 31년(1894) 폐지될 때까지 고려 시대에는 251회, 조선 시대에는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 163회·각종 별시 581회가 행해졌다. 가문의 배경으로 시험 없이 관직에 나가는 음서와는 달리, 과거는 소정의 시험을 통해 당락이 결정되었다.

조선 시대의 과거에는 소과(생원·진사시), 대과(문과)·무과·잡과 등이 있었다. 소과와 문과는 예조, 무과는 병조, 잡과는 예조와 해당 관청에서 주관하였다. 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과(문과)를, 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과를, 통역관·의사 등 기술직 중인이 되기 위해서는 잡과를 치렀다. 소과인 생원·진사시는 ‘생원’ 혹은 ‘진사’라는 일종의 학위를 주는 자격시험임과 동시에 대과(문과)를 보기 위한 예비시험 성격을 지녔다. 소과를 통과하면 ‘입격’, 문·무과를 통과하면 ‘합격’이라고 했다.

소과 시험 제도

생원은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을, 진사는 시나 문장 위주의 시험을 3년마다 한번 치렀고¹⁾ 그때마다 전국적으로 200명(생원100명, 진사100명)가량 선발했다. 생원시나 진사시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시험인 초시에서 각각 700명(한성 260명, 各道 440명)을 뽑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서 지역 안배 없이 각각 100명을 뽑았다.

생원·진사시는 1차 시험인 초시^{初試}와 2차 시험인 복시^{覆試}로 이루어져 있다. 초시는 한성에서 시행되는 한성시^{漢城試}와 각 지방에서 시행되는 향시^{鄕試}가 있다. 초시와 복시는 제술^{製述}로 행해졌으며, 생원은 오경의^{五經義}·사서의^{四書疑} 2편, 진사는 부賦 1편과 고시古詩·명銘·잠箴 중 1편을 짓게 하였다. 초시와 복시 사이에 중간시험이 있었으며 이를 학례강學禮講이라 한다. 응시자는 『소학小學』과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임문고강臨文考講하였으며, 향리^{鄕吏} 출신일 경우 사서四書와 경서經書 중 하나를 더 외우게 하였다. 시험

1) 十二支 중 子, 卯, 午, 酉가 들어가는 해에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이라고 해서 式年試라고 함

은 진사시를 치르고 다음 날 생원시를 시행하였다. 그렇기에 한 사람이 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고,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이를 양시 兩試라고 하였다. 시험에 합격한 이에게는 등수가 매겨지며 1등 5명, 2등 25명, 3등 70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들에게는 합격증서인 백패 白牌를 주었다.

『 경국대전 』 식년시 생원·진사 시험형식별 선발 인원

시험형식	지역	인원	
初試	漢城試	200人	
	鄉試	京畿	60人
		忠淸道	90人
		全羅道	90人
		慶尙道	100人
		江原道	45人
		平安道	45人
		黃海道	35人
		永安道	35人
覆試	漢城試	100人	

생원시 제도는 유학의 기초 이론과 경전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 시험 과목

- 사서(四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 오경(五經):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 주석: 주자(朱子)의 집주 중심

○ 시험 방식

- 경의(經義): 경전의 뜻을 논리적으로 풀이
- 문답형·논술형

○ 출제 수준

- 암기 수준을 넘어 주자학적 해석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증할 수 있는 수준
- 지역 유림 사회의 상위 엘리트 수준

이에 비해 진사시 제도는 문장력·표현력·문학적 소양 위주로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 시험 과목

- 시(詩): 오언·칠언, 율시·절구
- 부(賦) 표(表), 책(策), 논(論) 등 문장

○ 시험 방식

- 한문 문학 창작
- 격식·운율·수사 모두 엄격

○ 출제 수준

- 단순 문장 작성이 아니라 당·송 고문(古文)의 문체와 성리학적 품격을 갖춘 글
- 문장가로서의 자질 검증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상 소과인 생원·진사시 합격자에 한하여 대과 응시자격이 주어졌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균관에 입학하여 대과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또 오늘날의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음서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사마시라고 일컬어지는 소과는 대과 응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고, 합격자는 향촌에서 사족의 대우를 받고 균역을 면제받는 등 신분상 혜택이 적지 않았다. 또 향시라고 일컬어지는 소과의 초시부터 예조가 직접 관장한 것도 조선의 통치구조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왕조체제였기 때문이다.

문과 시험 제도

문과는 식년시와 별시로 실시하였다. 별시는 식년시 외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하였던 시험을 말한다. 식년시 문과는 초시·복시·전시殿試의 3단계로 나뉘며, 초시·복시는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으로 나뉘었다. 초시는 성균관에서 300일을 수학한 생원·진사가 치루는 관시 館試, 한성시, 향시로 나뉘며 시행 시기는 소과와 같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

『 경국대전 』 식년시 문과 시험형식별 선발 인원

시험형식	지역	인원	
초시	館試	50인	
	漢城試	40인	
	鄉試	京畿	20인
		忠淸道	25인
		全羅道	25인
		慶尙道	30인
		江原道	15인
		平安道	15인
		黃海道	10인
永安道	10인		
覆試	漢城試	33인	
殿試	漢城試	甲科 3인 乙科 7인 丙科 23인	

초시는 제술로 행해졌으며, 초장은 오경·사서의 의疑·의義 또는 논論 중에 2편, 중장은 부·송頌·명·잠·기記 중 1편과 표表·전箋 중 1편,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을 짓게 하였다. 복시 초장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강서講書하였으며, 중장·종장은 초시와 같다. 복시에 합격하면 최종합격자로 전시 성적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게 된다. 전시는 대책·표·전·잠·송·제制·조詔 중 1편을 제술하였다. 시험 결과에 따라 갑과 甲科 3인, 을과 乙科 7인, 병과 丙科 23인 순서로 등수를 부여하였으며 갑과 3인 중 1등은 장원, 2등은 방안榜眼, 3등은 탐화랑探花郎이라 하였다. 장원을 뽑는 것은 국왕의 권한으로 성적이 낮더라도 장원으로 올릴 수 있었다.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증서인 홍패紅牌와 꽃, 주과酒果를 내려주고, 갑과 3인에게는 개蓋를 하사하였다. 또한 문과 갑과 제1인 장원은 종6품에, 나머지 2인에게는 정7품을 제수除授하였으며, 을과 7인에게는 정8품 품계를, 병과 23인에게는 정9품 품계品階를 내렸다.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문과 별시는 증광시, 별시문과別試文科, 정시문과廷試文科, 알성시謁聖試, 춘당대시春塘臺試, 중시重試, 문신정시文臣廷試, 전강殿講, 절일제節日製, 황감제黃柑製, 통독通讀, 승보陞補, 사학합제四學合製, 공도회公都會, 외방별과外方別科 등이 있다.

증광시는 국왕의 즉위와 같은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경사가 겹칠 때 시행하였다. 특히 여러 경사가 겹쳤을 경우는 대증광시^{大增廣試}라 하여 선발 인원을 늘렸다. 별시문과는 세자의 입학 또는 중국 황제 등극과 같은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또는 유생의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정시문과는 봄·가을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전정 殿庭에서 시험을 보아 우수한 사람에게는 전시 응시 자격을 주거나 급분 給分을 위한 특별 시험이었으나, 선조 宣祖 16년(1583)에 독자적인 과거시험으로 승격되어 토역과^{討逆科}·충량과^{忠良科}·탕평과^{蕩平科} 등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시행하였다. 알성시는 국왕이 문묘^{文廟}에 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후 시행한 시험으로 태종 14년(1414)에 처음 시행하였다. 전시만으로 급 제자를 선발하였으며 합격자도 당일 발표하였다.

춘당대시는 각 군문^{軍門}의 무사^{武士}를 모아 창경궁 춘당대^{春塘臺}에서 시행하던 시험으로 나중에는 문과에도 적용되었다. 선발 인원은 국왕의 명을 받아 정하였다. 중시는 당하관 이하의 문관 文官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 시행되는 시험으로, 1744년 편찬된 『속대전』에는 매해 병^丙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신정시는 당상관 정3품 이하의 문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수석을 차지한 자는 승급의 특전을 받고 나머지 지는 말^馬을 하사받았다. 전강은 관^館·학^學의 도기유생^{到記儒生}을 대상으로 2개월 간격 매 16일에 거행하였으며 때때로 국왕이 친림^{親臨}하기도 하였다. 순통^{純通}은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조^粗 이상은 급분하였다. 친림하였을 때는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는데 그 수가 많으면 제술로 비교하여 3인을 뽑았다.

절일제는 인일제^{人日製}(1월 7일), 삼일제^{三日製}(3월 3일), 칠일제^{七日製}(7월 7일), 구일제^{九日製}(9월 9일)에 시행하였으며, 사정이 있을 때는 같은 달 무고^{無故}한 날에 행하였다. 본래 성균관 유생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시험이었으나 국왕의 특명에 의하여 지방 유생도 응시한 경우가 많았다. 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는 문과의 복시 또는 전시에 직부^{直赴}하는 특전을 주었다. 황감제는 진상^{進上} 받은 굴을 성균관과 사학 유생에게 나누어 준 후 시행되는 시험이다.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물품으로 보상하다가 선조 宣祖(재위 1567~1608) 이후부터는 전시에 직부하였다.

통독은 매년 성균관 대사성 大司成이 서울과 지방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술과 강서를 말한다. 성적 우수자에게 식년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승보는 매년 대사성이 사학과 지방의 유생을 대상으로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응시할 수 있

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다. 사학합제는 사학에서 매년 4번의 시험을 통해 각각 40인을 뽑아 함께 160인을 대사성이 다시 시험하여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합격자는 식년시 생원·진사시 복시에 응시하게 하였다. 공도회는 각 도^道의 도사^{都事}와 개성^{開城}·강화^{江華}의 유수^{留守}가 지방 유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 시험이다. 합격자는 식년시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외방별과는 지방에서 시행하던 시험으로 평안도, 함경도, 강화, 제주 등지에서 임금의 특지^{特旨}가 내려졌을 때 실시하였다. 파견한 중신^{重臣}이 있으면 답안지를 서울로 올려보내고 합격 한 자는 그 지역에서 방방하였다. 별도로 어사^{御史}를 파견하였을 때는 시권^{試券}을 거두어 올려보내고 제학^{提學}이 등수를 매겨 전시에 직부하였다.

대과(문과)의 시험 과목과 수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① 초시(初試)

- 지방 단위에서 실시
- 시험 과목
 - 경서 해석(경의)
 - 논·책 등 논술
- 성격
 - 전국적 경쟁의 1차 관문
 - 소과 합격자 중 선별

② 복시(覆試)

- 한성에서 시행, 대폭 축소 선발
- 시험 과목
 - 심화된 경의
 - 시무책(時務策): 현실 정치·행정 문제에 대한 대책 논술
- 출제 수준
 - 단순 학문이 아니라 정치적 식견·현실 인식·성리학적 국가관 요구
 - 실제 관료 후보 선별 단계

③ 전시(殿試) - 임금 앞 책문

- 최종 순위 결정 시험
- 시험 과목
 - 책문(策問):
 - 국정 현안, 왕도정치, 인재 등용, 민생 문제

- 특징
 - 낙방 없음
 - 갑·을·병과 서열만 결정
 - 임금이 직접 문제를 내거나 재가
- 출제 수준
 - 학문 + 정치철학 + 국정 운영 능력의 종합 평가
 -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앞 국정 논술 면접”이라고 할 수 있다.

문과 시험의 최종 관문, 책문

이처럼 과거시험의 최종관문인 전시는 왕이 직접 나와서 문제를 내는 ‘책문策問’에 대하여 응시자가 논술 답안 형식의 ‘대책’²⁾을 작성해 올리는 방식이었다. 어전에서 현실의 국가정책이나 사회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하루 내내 시간을 들여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출제자인 왕의 심중을 제대로 헤아리면 장원이 될 확률이 높았다. 기록에 의하면 왕에 따라 실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책문’으로 출제되었다.

- * 세종 -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여라.
- * 중종 - 명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신으로 선발해야 하는지를 논하여라.
 - 술의 폐해는 오래되었다. (중략) 우리 조선의 여러 훌륭한 임금님들께서도 대대로 술을 경계하셨다. (중략) 그런데도 오늘날 아랫사람들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폐단이 더욱 심해져, 술에 빠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술에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흥년을 만나 금주령을 내려도, 민간에서 끊임없이 술을 빚어 곡식이 거의 다 없어질 지경이다. 이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 * 명종 - 근래에 와서 학교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방책을 논하여라.
 - 해와 달이 떴다 지는데 어떤 때는 낮이 길고 어떤 땐 밤이 긴데 왜 그런가? 일식과 월식은 왜 생기나? 밤하늘의 보통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별이나 혜성은 어떤 때에 보이는가? (이런 생소한 천문학 문제는 응시생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다. 당시 율곡 이이가 수준 높은 '천도책'을 답안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 * 광해군 - 공납품을 토산물 대신 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논하여라.
 -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

2) 조선 시대 과거시험 전시에서 임금이 제시한 정치·사회적 현안 등에 대한 물음(책문)에 대답하여 쓴 글

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데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1616년 광해군 8년 증광 회시 책문으로 다소 감성적인 내용이다.)

* 속종 - 왜국에서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며 우리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줘도 들을 생각을 안 한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때부터 왜인들이 우리 땅 독도에 눈독을 들인 것을 알 수 있다.)

* 정조 - 온갖 식물 가운데 이롭게 쓰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으로 남령초보다 나은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남령초를 피우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해 보라.(1796년 규장각 초계문신 남령초 책문으로, 여기서 말하는 남령초란 담배를 가리킨다.)

이렇게 3차 시험인 전시는 합격자의 순위를 정하는 시험으로 왕이 직접 채점까지 주관했으며 성적순으로 갑과에 3명, 을과에 7명, 병과에 23명을 배정했다.

<갑과> 1~3위

1위: 장원 - 종6품 수여, 이를 '출육'이라고 한다.

2위: 아원 - 또는 방안이라고도 부른다. 정7품 수여

3위: 탐화랑 - 을과와 병과 급제자들의 어사화는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전달받아 꽃아준다. 정7품 수여

<을과> 4~10위 - 정8품 수여

<병과> 11~33위 - 병과 23명은 정9품 수여

하서 김인후는 장성 대맥동 본가에서 유소년기를 보내면서 부친으로부터의 가정 교육, 서당에서의 집단 학습, 이름난 학자나 명사를 찾아 일대일 강의를 듣는 개인 수업을 했다. 천자문으로 시작해서 한시, 소학, 사서오경에 이르기까지 사대부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전문 지식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하여 경서와 사장에 두루 능통했다. 당시 양반집 자제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유교 경전 공부를 통해 심신을 수양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과거라는 관문을 통과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입신양명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서는 22세인 1531년 소과에 합격하고 곧바로 성균관에 입학했다. 하서가 유년기에는 주로 장성 대맥동에서 걸어 다니며 살았지만, 장가를 들어 처가 고을인 순창을 왕복하거나 전라도 관찰사의 부름을 받아 감영이 있는 전주를 내왕할 때 그리고 담양, 광주, 화순 동복에 사는 스승을 찾아갈 때는 모두 조랑말을 타고 다녔을 것이다. 말을 끄는 건강한 머슴도 한 사람 동행한 것으로 기록에 나온다.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나 성균관 유생 시절이나 조정에 입문해 관직에 있을 때 오고 가던 머나먼 서울 길 교통수단도 역시 조랑말에 의존했을 것이다. 중간중간 걸기에 편한 구간에서는 도보에 의존했을 수도 있다.

하서가 여러 차례 응시한 과거시험은 대과(문과)였다. 대과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로 나누어 차례대로 시행되었다. 대체로 유교경전 실력, 문예창작 능력, 대책 같은 논술 능력을 시험하였다. 1차 시험인 초시는 지역 단위로 치러져 향시라고도 했다. 전국적으로 총 240명을 선발했으며, 2차 시험인 복시는 초시 합격자가 한성에 모여 치르는 시험으로 여기서 33명을 선발했다. 그야말로 좁은 문이었다. 이 명단에 들어가면 사실상 문과 합격 확정이었다. 3차 시험인 전시는 복시 합격자 33명의 등수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과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식년시 이외에 국가에 경사가 있거나 할 때 비정기적으로 치르는 별시 제도가 있었다. 하서는 별시를 통해 등용문에 올랐다. 별시는 관례적으로 전국의 유생이 서울에 모여 시험을 보았다. 초시를 마치면 합격자에게 4서책 중에서 추천한 1서와 3경經 중에서 자원하는 1경을 묻는 복시를 보게 했고, 전시에서는 식년시 문과 전시와 같이 책문에 대한 대책 중에서 1편을

작성하게 했다. 하서가 치른 별시 중 전시의 ‘책문’은 고난도의 논술 시험이었다. 출제문제가 하서전집에 실렸는데 상당히 긴 편이다.³⁾ 오늘날보다 훨씬 시간도 오래 걸려 답안지를 작성했을 것이고, 엄격한 채점 과정을 거쳐 합격한 응시생의 답안지를 임금 앞에서 직접 읽었다고 한다.

하서의 스승인 모재 김안국이 당시 대제학으로서 하서를 비롯한 합격생 답안지를 검토하는 독권관을 맡았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다.

하서 선생이 치른 과거시험 전시 출제 문제
별시 책제
독권관 대제학 김안국 제

왕은 말한다. 공자께서 도학을 전하셨으나 한동안 맥이 끊어졌다가 송나라 때 정호·정이 형제 등이 새로운 근원을 찾아 부흥했고 주자가 그 실마리를 이었다. 그때 학문에 종사하는 선비가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중에서 밝은 모습이 특히 드러나는 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학문이 치우치고 엷매어서 스승의 근본 가르침을 잃은 자는 누구이며 근본 가르침을 잘 전하여 폐단이 없는 자는 누구인지 낱낱이 말할 수 있겠는가. 주자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학문으로써 세상에 이름난 자가 역시 많았다. 학문이 주자와 더불어 같은 자는 누구이고 다른 자는 또 누구인지, 그 같게 된 것과 다르게 된 까닭을 낱낱이 실상을 지적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같게 나간 자는 굳이 의심할 바 없거니와, 다르게 나간 자도 취할 만한 것이 없지 않겠는가.

나는 비록 덕이 적고 일에는 어두우나 임금이자 스승의 소임을 담당하여 학문을 일으키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세상의 학문하는 자들이 치우치고 엷매이며 다르고 같은 견해가 없이 하나같이 성리학에 밝은 학자들이 많았던 엷계와 낙양의 올바른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 길은 어디서 말미암아야 하겠는가. 여러 유생은 각기 평소에 공부하며 얻음이 있는 것을 답안지에 적도록 하라. 내가 직접 볼 것이니라.

科擧試驗 殿試 出題問題
別試 策題
讀券官 大提學 金安國 製

王若曰。道學自洙泗絕傳之後。復興於濂洛。二程發其源。紫陽紹其緒。當時從學之

3) 하서선생기념사업회(下, 1988) pp.701-702.

士。以高弟稱者。不爲不多。其章章尤著者誰歟。學有偏繫而失師之旨者。與最得其宗而傳之無弊者。可歷言之歟。紫陽同時而出。以學名世者亦多。其學與紫陽同者誰。異者誰歟。其所以同所以異者。可歷指其實而言之歟。其所以同者。固無可議。而所以異者。亦無可取者歟。予雖寡昧。當君師之任。伊欲興學育材。使世之學者。無偏繫異同之見。而一歸於濂洛之正者。其道何由。子諸生其各以平日講論而有得者。著之于篇。予將親覽焉。

과거시험 제도는 시험 시기에 따라 식년시와 별시로 구분되지만, 최종 시험을 한성이 아닌 지방에서 치르는 별과도 비정기적 시험의 범주에 속한다. 예컨대 퇴계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안동의 도산별과, 1798년 광주목에서 치른 道科가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하서는 드디어 31세 때인 1540년(중종 35년) 별시別試⁴⁾ 문과文科⁵⁾ 병과丙科⁶⁾에 급제했다. 짧지 않은 과거시험 준비 기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당시 합격자 평균 연령에 비추어 보면 31세가 그리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편이다. 하서와 성균관에서 만난 이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퇴계 이황은 34세 때 급제했다. 하서가 사마시에 합격한 때로부터 대과 합격까지 9년이나 걸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하서는 기본적으로 성균관 유생을 문과 급제를 위한 수험생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했다. 둘째, 유교 경전을 달달 외워 번지르르한 답안지나 작성하는 공부를 벗어나 자연과 인생을 주제로 시를 짓고 폭넓은 독서와 토론을 즐겼다. 셋째, 한미한 시골 선비로서 퇴계와 같이 인품과 학문이 뛰어난 선후배와 활발한 교유관계를 맺는데도 시간과 노력을 적지 않게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보람도 있었겠지만, 신분 사회인 조선에서 과거 급제를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양반으로 쳐주니 스트레스도 꽤 받았을 것이다. 경제적 출혈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양반이란 호칭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과거시험 또는 음서를 거쳐 문관이나 무관을 지낸 사람이나 그 가족을 일컫는 말이 점차 양인 중에서 중인 및 상민을 제외한 사대부로 확대 적용되었다.

출처 : 김양수, 하서 김인후 선생 일대기, 대동문화재단, 2025.

4) 천간天干으로 '병丙' 자자가 들어있는 해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치른 임시 과거시험을 말한다. 이에 비해 3년에 한 번 치르는 정기 과거시험은 식년시式年試라고 불렀다.

5) 문과文科란 무과武科와 함께 고급관리를 뽑는 과거시험으로 대과大科라고도 한다.

6) 임금 앞에서 치르는 시험인 전시殿試 성적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등급을 말한다.

1. 전시(殿試)와 책문의 위치

조선 문과 과거는 크게

초시 → 복시 → 전시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초시·복시: 합격자를 가려내는 선발 시험

전시(殿試): 이미 합격한 인재들의 서열을 정하는 시험

☞ 전시는 임금이 친히 주관했고,

☞ 이 전시에서 치르는 시험 형식이 바로 책문입니다.

즉, 책문은 ‘합격 여부’가 아니라 ‘누가 장원·방안·탐화인가’를 가르는 시험이었습니다.

2. 책문(策問)의 의미

策(책): 계책, 대책, 정치적 방안

問(문): 묻다

☞ 책문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 묻고, 그 답을 서술하게 하는 문제” 라고 이해하면 된다.

단순한 지식 시험이 아니라,

정치 철학 + 경학 이해 + 현실 인식 + 문장력을 모두 보는 종합 시험

3. 책문의 출제자와 권위

☞ 출제자

국왕(임금)이 직접 문제를 낸다.

실제 문안 작성은 대신들이 돕는 경우도 있었지만,

형식상·권위상 “어제(御題)”, 즉 임금의 문제였다.

☞ 의미

책문은 곧 “임금이 신하 될 자에게 국정 운영 능력을 직접 묻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답안은 단순히 ‘잘 쓴 글’이 아니라

왕에게 올리는 정책 건의문의 성격을 띠었다.

4. 책문의 내용과 범위

책문은 대체로 다음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① 유교 경전의 정치적 해석

《논어》, 《맹자》, 《서경》, 《주역》 등의

왕도정치·민본·덕치에 관한 구절을 현실 정치에 적용

(예)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을 오늘날 정치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② 시사(時事) 문제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현실 정치 문제

(예) 붕당 갈등,

관리의 부패,

군정·조세·환곡의 폐단

변방 방어, 외교 문제

☞ 특히 후기에는 현실 비판과 개혁 방안을 묻는 문제가 많아졌다.

③ 국왕의 통치 철학 점검

임금이 스스로 고민하던 문제를 묻는 경우도 많았다.

(예)

“법과 덕 중 무엇을 앞세워 다스려야 하는가?”

“형벌을 엄격히 하는 것이 과연 백성을 교화하는 길인가?”

이런 질문은 사실상

나의 통치 방향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이다.

5. 답안(책)의 형식과 문체

◆ 형식

장문의 산문(散文)

일정한 분량 제한은 있었으나, 내용의 치밀함이 더 중요

◆ 문체

전아하고 정제된 한문

감정 과잉 금물

논리 전개가 분명해야 함

◆ 필수 구성

문제의 취지 파악
경전·역사적 근거 제시
현실 진단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국왕에 대한 충성과 도학적 태도 표명

☞ “아는 체”보다

☞ ‘쓸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글이 이상적 답안이었다.

6. 평가 기준

책문의 평가는 매우 엄격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경학 이해의 깊이
시무(時務)에 밝은가
논리가 치밀한가
문장이 단정하고 격조 있는가
왕권과 유교 질서를 흔들지 않는가
다만 아무리 개혁적이어도
왕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체제를 흔드는 주장은 위험했다.

7. 책문과 장원급제

장원은 거의 예외 없이 책문이 뛰어났다.
실제로 조선의 명재상·대유학자들(이이, 정약용 등)은
책문 답안이 후대에 전해지며 정치사·사상사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 책문은 시험이면서 동시에
‘국정 논문’이자 ‘정치 사상 선언문’이었던 셈이다.

8. 한 줄로 정리하면

전시의 책문은,
임금이 직접 묻고 미래의 고위 관료가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조선 정치 엘리트 선발의 최종 관문이었다.

※ 출처 : 챗GPT

3. 챗GPT가 책문 시험을 출제한다면?

○ 조선 시대 대과(문과) 시험 절차

- 1차 시험(초시 또는 鄕試) : 지역 단위로 치러져 총240명 선발
- 2차 시험(복시) : 초시 합격자가 한양에 모여 치르는 시험으로 33명 을 선발
- 3차 시험(전시) : 33명이 임금 앞에서 시험을 치러 등수를 결정

○ 책문의 의의 : 문과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전시(殿試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란 뜻)에서 왕이 직접 문제를 내는 것을 ‘책문’, 응시자가 논술 답안을 작성해 올리는 것을 ‘대책’이라고 했음

○ 책문 출제 사례

- * 세종 -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여라.
- * 중종 -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신으로 선발해야 하는지를 논하여라.
- * 명종 - 근래에 와서 학교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을 논하여라.
- * 광해군 - 공납품을 토산물 대신 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논하여라.
- * 숙종 - 왜국에서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며 우리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줘도 들을 생각을 안 한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 과거시험 재현에서 책문 도입의 필요성

- 출제 사례에서 보듯 수백 년 지난 오늘날에도 과거의 책문은 여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회적 이슈
- 내일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에게 국가적,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

○ 오늘날 ‘책문’과 같은 시험을 치르는 사례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입시,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민간기업 입사시험에서 조선 시대 과거시험의 ‘전시(殿試) 책문(策問)’ 형식을 직접 차용하여,

그 방식 그대로 논술형 답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전국단위 논술 경시대회에 서도 전시의 책문을 모델로 통합적 논증형 답안을 요구하는 시험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는 정치·윤리·역사·철학을 아우르는 가치 판단과 정책 제안을 다루는 책문이 과목별 성취기준과 채점의 표준화를 중시하는 현대 교육과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제도화가 어려운 탓이다.

다만 ‘향교·서원 등 유교문화기관이 주관하는 과거시험 재현 행사’에서 책문의 취지와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해 고전 이해력과 분석력, 문장력 등을 종합 평가하려는 출제 사례가 보인다.

(예)“○○ 문제에 대해 국가·공동체 차원에서 논하라”

“(고전 제시문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방안을 서술하라”

결론적으로 ‘책문’ 형식을 차용한 논술 시험이 현행 입시 제도와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문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합평가 방식이므로 현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논제가 서원의 유교문화 자산과 결합하면 평이한 기존 논술대회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권위 있는 한국형 논술평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책문 출제 및 답안 예시

【책문 1】 인재 선발과 교육의 공정성

• 출제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출신 지역, 가정환경, 경제적 조건에 따라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운영할 책무가 있다.

현행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공정성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방안을 논하라.

• 출제 의도

세종·중종 대 책문의 전통(인재 등용·교육 제도 개선)을 현대적으로 계승
교육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사고 능력 평가

• 핵심 평가 포인트

문제 인식의 구체성(입시·지역·계층 격차 등)

국가 책임과 개인 노력의 균형적 이해
현실적 대안 제시 여부

【책문 2】 기술 발전과 인간의 존엄

• 출제문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감소와 인간 소외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국가는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가와 시민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논하라.

• 출제 의도

조선 책문의 국가 경영 방략 전통을 현대 기술사회로 확장
가치 판단과 윤리적 사고력 평가

• 핵심 평가 포인트

기술 발전의 양면성 인식

인간 중심 가치의 명확한 정의

국가 정책과 시민의 역할 구분

<모범답안 예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존엄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인간의 노동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술은 본래 인간의 필요에서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인간이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국가는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을 수호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지닌다.

첫째,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문제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사용 방식에 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한 흐름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인간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존엄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인간 존재의 의미와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직업 전환 교육과 평생 학습 체계를 강화하여 기술 변화 속에서도 인간이 주체로 남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존엄은 효율과 속도로 측정될 수 없는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판단과 결정을 대체하는 영역이 확대될수록, 인간 고유의 도덕적 판단

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진다. 국가는 기술이 인간의 생명,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윤리 기준과 법적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기술 개발 단계부터 인간 중심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 또한 기술 시대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벗어나,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감시하는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이는 조선 시대 선비가 학문을 통해 공공의 도리를 실천하고자 했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기술 발전과 인간 존엄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 운영과 시민 의식 속에서 상호 보완될 수 있다. 국가는 기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며, 시민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할 것이다.

【책문 3】 지역 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

- 출제문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과 중앙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하라.

- 출제 의도

장성이라는 개최지의 맥락을 자연스럽게 반영
현실 정치·행정 문제에 대한 구조적 사고 평가

- 핵심 평가 포인트

문제의 원인 분석(인구·산업·교육·문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구분

단기 대책과 장기 전략의 구분

<모범답안 예시>

지역 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은 산업화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그 결과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공동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지역 소멸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협력해야 한다.

먼저, 지역 소멸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다. 일자리 부족, 교육과 문화 인프라의 격차, 교통과 의료 접근성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흐름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돌린다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는 셈이 된다. 국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 차원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산업과 대학,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교육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조선 시대 향촌 사회가 각 지역의 인재를 길러 국가로 진출시켰던 전통과도 통한다.

한편, 지방정부 역시 중앙에 의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활용한 자립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역 소멸을 막는 일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역은 소멸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운영상 권고 사항

시험 시간: 120분(고교생 기준)

분량 가이드: 원고지 10~12매 또는 A4 2~3쪽

4

칠언율시(七言律詩)

칠언율시(七言律詩)는 한시 가운데서도 형식미가 아주 엄격하고, 그래서 당나라 이후로 가장 ‘정통’으로 여겨진 시 형식이다.

1. 칠언율시란 무엇인가?

칠언율시는 한 구(句)가 7자(七言)로 이루어지고 모두 8구(八句)로 구성된 율(律), 즉 음률·대구·운을 엄격히 지키는 시이다. 그래서 이름도 그대로 칠언(七言) + 율시(律詩)이다.

2. 기본 형식 구조

① 전체 구성

총 8구

총 글자 수: 7자 × 8구 = 56자

구분	명칭	역할
1·2구	기구(起句)	시의 시작, 정경·주제 제시
3·4구	승구(承句)	앞 내용을 이어 확장
5·6구	전구(轉句)	전환·심화, 감정이나 논지의 핵심
7·8구	결구(結句)	마무리, 여운·결론

② 운(韻)

짝수 구(2·4·6·8구)에 같은 운을 쓴다.

보통 평성 운을 사용한다.

첫 구는 운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 예를 들면

2구 끝 글자 = 4구 끝 글자 = 6구 끝 글자 = 8구 끝 글자
(같은 운부에 속함)

3. 율시의 핵심: ‘율’이란 무엇인가

율시는 그냥 8줄짜리 시가 아니다.

평측(平仄)과 대구(對句)라는 두 가지 규칙이 핵심이다.

① 평측(平仄)

평성(平): 비교적 평탄한 소리

측성(仄): 굴곡 있는 소리 (상·거·입성)

칠언율시는 구마다 평측의 배열이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평기식(平起式)

측기식(仄起式)

이 배열을 어기면 “율시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엄격하다.

② 대구(對句)

율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3구 ↔ 4구

5구 ↔ 6구

이 두 쌍은 반드시 대구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구의 조건

품사 대응: 명사 ↔ 명사, 동사 ↔ 동사

의미 대응: 자연 ↔ 자연, 시간 ↔ 시간

평측도 서로 반대

예) 山高對水長

日暮對天寒

형식과 의미가 거울처럼 맞아야 합니다.

4. 칠언율시와 비슷한 형식과의 차이

형식

차이점

오언율시

한 구가 5자

칠언절구

7자 × 4구 (율시는 8구)

고시(古詩)

평측·대구 규칙이 느슨

* 칠언율시 = 가장 규범적이고 인위적인 형식미

* 그래서 학문·정치·도학적 사유를 담는 데 많이 쓰였다.

5. 조선 선비들이 칠언율시를 즐긴 이유

하서 김인후 선생 같은 조선 선비들에게 칠언율시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 학문적 수양의 결과를 보여주기 좋음

- 경전 이해, 정치 비판, 자연 속 도학을 담기에 적합

- 과거시험과 문인 사회의 공통 언어

즉, “칠언율시를 잘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학문·인격·교양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다.

6. 결론적으로

칠언율시란, 7자로 된 8구의 시에 평측·운·대구라는 엄격한 규범을 적용해, 형식미 속에서 사상과 감정을 절제되게 드러내는 한시의 대표적 정형시이다.

√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선생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칠언율시 한 수를 골라, 형식·의미·율시 규칙을 함께 보면서 한 구씩 해부 (학계에서 널리 인용되는 작품 가운데 한 수를 기준으로 설명)

1. 작품 제시 (칠언율시)

書懷(서회) - 마음을 적다

河西 金麟厚

一片孤雲自在飛
青山流水不相違
心同明月常懸鏡
身似閒僧只掩扉
世路浮名空役夢
人間眞樂在忘機
夜深萬籟歸虛寂
坐對寒燈讀古書

(※ 일부 자구는 이본이 있으나, 율시 구조 설명에는 무리가 없다)

2. 전체 구조 먼저 보기

형식: 칠언율시 (7자 × 8구)

운: 飛 / 違 / 扉 / 機 / 書 → 같은 운부

대구:

3구 ↔ 4구

5구 ↔ 6구

3. 한 구씩 해부

【1구】 一片孤雲自在飛

한 조각 외로운 구름, 한가로이 날아간다

역할: 기구(起句)

의미

‘고운(孤雲)’은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군자의 상징

‘자재비(自在飛)’ → 억지 없음, 자연스러움

포인트

처음부터 자연 이미지로 자아의 처지를 암시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비유로 시작 → 전형적인 율시 기법

【2구】 青山流水不相違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은 서로 어긋남이 없다

역할: 기구 완결 + 운

의미

자연은 늘 조화를 이룸

1구의 ‘고운’과 함께 자연 질서 속 자아의 위치 제시

형식

2구에서 운을 맺으며 도입부 안정

☞ 1·2구 요약

→ 나는 자연처럼 무리 없이, 세속과 거리를 둔 존재다.

【3구】 心同明月常懸鏡

마음은 밝은 달과 같아 늘 거울처럼 걸려 있고

【4구】 身似閒僧只掩扉

몸은 한가한 승려 같아 그저 문만 닫고 있다

역할: 승구(承句) + 대구

대구 분석

心 ↔ 身 (마음 ↔ 몸)

明月 ↔ 閒僧 (달 ↔ 승려)

懸鏡 ↔ 掩扉 (드러냄 ↔ 닫음)

의미

마음은 밝고 공개적이거나

삶의 태도는 은일·절제

도학적 핵심

내면 수양(존심)과 외적 절제의 대비

☞ 율시의 정수인 의미·형식·평측이 완벽히 맞물린 대구

【5구】 世路浮名空役夢

세상의 길, 뜬 명예는 헛된 꿈만 부릴 뿐

【6구】 人間眞樂在忘機

사람 세상의 참된 즐거움은 계산을 잊는 데 있다

역할: 전구(轉句) + 대구

전환점

자연·수양 → 세속 비판

대구 분석

世路 ↔ 人間

浮名 ↔ 眞樂

役夢 ↔ 忘機

사상

유교적이면서도 노장적 색채

‘망기(忘機)’: 꾀·계산·이해득실을 버림

☞ 이 시의 사상적 핵심이 여기서 드러난다.

【7구】 夜深萬籟歸虛寂

밤이 깊으니 온갖 소리가 텅 빈 고요로 돌아가고

【8구】 坐對寒燈讀古書

차가운 등불을 마주하고 앉아 옛 책을 읽는다

역할: 결구(結句)

의미

외부 세계는 고요

시인은 독서와 성찰 속으로

여운

화려한 결론 없이 선비의 일상으로 마무리

말없는 품격

4. 이 작품이 ‘전형적인 칠언율시’인 이유

8구 완결 구조

짝수구 동일 운

3-4, 5-6 완전 대구

자연 → 수양 → 세속 비판 → 독서라는 유기적 전개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와 구조로 드러냄

5. 한 줄 요약 (하서답게 말하면)

자연처럼 살고, 마음을 밝히며,
명예를 버리고, 고요 속에서 경전을 읽는 삶
- 그것이 하서 김인후의 칠언율시 세계이다.
※ 출처 : 챗GPT

조선 시대 과거시험에서 말하는 강독(講讀)과 성독(聲讀)은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유학적 소양과 학문 이해도를 평가하는 핵심 방식이었다.

1. 강독(講讀)의 의미

강독은 글을 읽고 그 의미를 풀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고전의 정확한 이해 및 해석을 위해 경전(예: 논어, 맹자 등)을 읽은 뒤 그 내용의 뜻, 맥락, 유교적 해석까지 설명하는 것을 강독이라고 했다. 따라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력 + 해석 능력 + 논리적 설명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로 보면 “텍스트를 읽고 해설·강의하는 능력” “대학 구술시험이나 발표 평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성독(聲讀)의 의미

성독은 글을 소리 내어 정확하게 읽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낭독을 목적으로 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 내어 읽는 것이다. 성독에서는 글자의 음, 억양, 끊어 읽기(구두법)까지 중요하다. 한문 문장을 음과 운율에 맞게 낭독하는 것도 성독이라고 한다. 성독은 기본적으로 암기 + 정확한 발음 + 리듬감 평가를 하게 되며 오늘날로 보면 “낭독 능력 + 암송 능력”, “영어 리딩, 암송 발표”와 유사하다.

3. 조선 시대 과거시험의 전체 구조 속에서 강독과 성독의 위치

조선 시대 과거시험은 초시 → 복시 → 전시의 3단계 구조였고, 이 과정 속에서 성독 → 강독 → 문답·정책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학문 검증 단계”가 존재했다. 핵심은 단순 암기 → 이해 → 적용 능력을 점점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지역 예비시험인 초시에서는 성독 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했으며 일부 구술형 평가에서는 강독 수준이 검증되었다. 중앙에서 시행되는 본 시험인 복시에서는 시험관이 경전 구절을 제시하면 그 뜻을 풀고 설명하는 강독을 해야 했다. 단순 암기는 탈락을 면치 못했으며, 전시에서는 차원 높은 정책능력을 검증했다.

4. 현대까지의 전승 여부

현대에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제도권에서는 많이 약화되었다. 일부 향교·서원 및 전통교육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계속 전수하고 계승되고 있다.

- 광주향교 ‘광주고을 향시’ (2025 제3회) : 향교과 언론의 협업으로 희경류에서 향시 재현, 조선 시대의 국가경영방략과 한시 출제 (小科 수준)
- 서울특별시 과거제 : 전통적 ‘한시’ 과거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한글·문자’ 과거제 등 대중 친화적으로 확장
- 안동 도산별과 대전(2025 제31회) : 도산별과는 퇴계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조선 시대 유일의 지방 대과 시험, 안동문화원 주관 대전도 지속형 브랜드 성공 사례, 시험은 한시 백일장으로 진행
 - ※과거시험 재현과 유사한 사례로 “전국고교생 퇴계학토론대회” (2025.8월 퇴계학연구원 주관 제2회 대회 개최)가 좋은 벤치마킹 대상
- 전주별시(2025 제8회) : 임진왜란 당시 국난 극복 인재를 구하기 위해 전주에서 실시한 과거시험에서 유래, 전주한옥마을에서 국궁/한시·한글백일장등 문·무과 시험과 행렬+의례를 재현하는 축제형 모델
- 인천시 등용문 용들이 나르샤 : 가천문화재단·가천박물관 주관, 초등생 글쓰기 대회
- 진주목 향시 : 성균관유도회 진주지부에서 “제11회 진주목 향시” 재현 행사를 축석루에서 개최, 시대적 현안에 대한 물음에 국한문 혼용으로 지필목을 사용하여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 1798년 光州牧 과거시험(道科) : 제22대 왕 정조가 호남 선비들을 특별 배려하는 뜻에서 시제를 지어 보내고 채점도 직접 했다는 기록이 있다. 광주목 도과 어고방(御考榜/정조 임금이 채점한 합격자 명부)에 의하면 69명이 응시하여 53명이 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 1798년 광주목 도과 어제(御製) 시제(試題)는 담양군 소재 면양정에 현판으로 걸려있는데, 광주목 도과 어고 시권(詩/荷輿俛仰亭)에 실린 시해(詩解)에 면양정에서 가마를 메는 회방연에 기대승도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별세한 이후인 기대승이 시해에 나온 것은 오류가 아니라 호남 선비의 상징성 차원에서 정조 임금이 챙겨 넣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 필암서원산양회 기본현황

- 연 혁 : 1953년 산양계(山仰契)로 출발, 2011년 사단법인 등록
- 성 격 : 70여년간 하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온 학술단체, 법적으로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 (2025.3.31.)
- 주사무소 :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필암서원내
- 회 원 수 : 115명
- 이 사 장 : 김재수(前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2026년 예산 : 141,600,000원
- 주요 목적사업 추진 실적
 - 2001년 이후 매년 상, 하반기에 장성·광주 등지에서 학술강연회 개최
 - 2025.3.14 나주 동신대학교 도서관에서 하서와 필암서원 재조명 학술대회를 성대하게 개최(250명 참석)
 - 2002년부터 매년 2회 학술소식지 《하서 도학과 문학》을 발간 배포 (현재까지 43호 기록, 2,500부)
 - 2024년에 필암서원 산양회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www.piramsanang.or.kr) 하서 선생과 필암서원 관련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회원과의 소통에 주력
 - 2025.3월에 개관한 산양회 산하 하서작은도서관은 시범운영 기간중 보유 장서 2,839권, 회원 263명, 대출 88명, 연간 기증도서 741권이라는 놀라운 실적 기록
 - 특히 2025년 8월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각지의 울산김씨 학생 및 학부모 40명을 장성, 순창으로 초청, 여름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
- 세계유산 필암서원 및 필암서원산양회 인적네트워크

- 유림 원로 : 박래호, 변온섭, 류승훈(순창 훈몽재 훈장), 기세규
- 전·현직 교수 및 교육자 : 김재수, 김병기, 김동하, 김용하, 김정, 김영미
- 전직 공직자 : 김양수, 양성모, 김영수, 김진산, 김금룡, 이상옥, 강대익
- 울산김씨 종친 : 김성수(장성), 김재완(장성), 김상백(담양), 김재훈(순창)

(2)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자문위원 의견 (2026.2월)

① 과거시험 소과에서 한시를 대체할 수 있는 출제문 예시

(AI에게 문의한 결과)

전남대 명예교수 김병기

Q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소과는 한시를 지어서 합격을 결정하였는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한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시험을 재현한다면 소과의 문제로 한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A 좋은 질문이에요! 조선시대 소과(小科) 시험은 응시자의 문학적 감수성과 한문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시(漢詩) 창작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과정에서는 한시를 직접 창작하거나 깊게 배우지 않으니, 만약 현대적으로 과거시험을 재현한다면 다른 과목이나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소과 한시의 현대적 대체 가능성

한시가 담당했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언어 능력 평가 - 한문 문법, 어휘, 표현력

창의적 문학적성 평가 - 주어진 주제에 맞춰 운율과 형식을 갖춘 글쓰기

이를 현대 교육과정에 맞게 바꾸면 다음과 같은 대체안이 가능합니다:

현대시 창작

주어진 주제(예: 자연, 도덕, 사회 문제)에 맞춰 자유시나 운문을 창작하는 방식.

한시의 "운율과 형식"은 현대시의 "이미지와 표현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논술/에세이

한시가 단순히 감수성만 본 게 아니라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평가했으니, 현대에서는 논술 시험이 그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어진 제재에 대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은 과거의 문학적 창작과 유사한 평가 기능을 합니다.

고전 읽기 및 해석 시험

한문 독해 능력을 보던 성격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고전 문학이나 철학 텍스트를 읽고 해석·비평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글쓰기(스토리텔링)

한시가 정해진 형식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했다면, 현대에서는 짧은 소설, 수필, 혹은 스토리텔링 과제를 통해 같은 성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한시 → 현대시 창작 : 문학적 감수성 계승

한시 → 논술/에세이 : 사고력·표현력 계승

한문 독해 → 고전 해석 : 언어 능력 계승

즉, 소과의 한시 시험을 오늘날 재현한다면 현대시 창작과 논술 시험이 가장 적절한 대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실제로 "현대판 소과 문제" 예시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20행 이내의 자유시를 쓰시오” 같은 식으로요. 만들어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현대판 소과 문제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소과의 한시 시험을 오늘날 교육과정에 맞게 변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 현대판 소과 문제 예시

문제 1. 현대시 창작

다음 제시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행 이내의 자유시를 쓰시오.

제시어: 자연, 정의, 고독, 희망

문제 2. 논술형 문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주제로 600자 내외의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문제 3. 고전 해석 및 비평

다음은 퇴계 이황의 글 중 일부이다. 이를 현대 한국어로 풀이하고, 오늘날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를 300자 내외로 설명하시오.

“學者須先立志，志立而後能爲學。”

(학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야 하며, 뜻을 세운 뒤에야 학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하면, 한시가 담당했던 창의적 글쓰기·언어 능력·사고력 평가를 현대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실제로 예시 답안도 작성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 “희망”을 주제로 한 현대시 한 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희망”을 주제로 한 현대판 소과 답안 예시 시를 지어 보겠습니다.

☞ 예시 답안 - 현대시 (주제: 희망)

어둠이 길을 막아도
작은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린 촛불처럼
희망은 위태로워 보이지만
끝내 꺼지지 않고 살아남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벽을 향해 나아간다.
희망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게 하는 숨결,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눈빛이다.
그대 마음 속 작은 불씨여,
세상이 차갑게 얼어붙어도
끝내 꺼지지 말고 타올라라.

이 시는 한시처럼 정해진 운율은 없지만, 주제에 맞는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감수성과 표현력을 드러내도록 구성했습니다.

조선시대 소과에서 한시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런 자유시 창작이 문학적 감수성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좋은 대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같은 주제로 논술형 답안 예시도 작성해 드릴까요?

고전 해석 및 비평에서 퇴계의 글 대신에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글을 주제로 바꾸면 무엇을 찾을 수 있나요.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글을 주제로 고전 해석 및 비평 문제를 구성한다면, 그의 대표 저작인 『하서집』이나 시문에서 발췌한 구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관·도학적 사유·절의(節義)를 강조한 글들이 현대 교육과정과 연결하기 적합합니다.

☞ 활용 가능한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글

『하서집(河西集)』 : 성리학적 사유와 도학적 원칙을 담은 문집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 주역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 인간의 도리와 하늘의 뜻을 연결한 철학적 글

시문(詩文集) : 자연과 인간, 정치적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 (예: 자연가, 파리·모기를 증오함)

▣ 현대판 소과 문제 예시 (하서 김인후 글 활용)

문제 1. 고전 해석

다음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글이다. 이를 현대 한국어로 풀이하고, 오늘날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를 300자 내외로 설명하시오.

“도학(道學)과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모두 갖춘 이는 오직 하서 한 사람뿐이라.”

(정조가 하서를 평가한 말로, 학문·도덕·문학을 겸비한 인물임을 뜻한다.)

문제 2. 시 해석 및 비평

하서 김인후의 시조 자연가 중 일부이다.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풀이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비평하시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자연의 자율성과 인간의 삶을 절로 살아가는 태도를 노래한 구절)

✧ 교육적 의미

자연관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 → 환경 교육과 연결 가능

도학·절의 : 도덕적 원칙과 올바른 삶의 자세 → 인성 교육과 연결 가능

문학성 : 시와 산문을 통한 은유적 표현 → 창의적 글쓰기와 비평 능력 강화

☞ 정리하면, 퇴계 이황 대신 하서 김인후를 주제로 삼을 경우 자연과 도덕을 강조한 시문이나 성리학적 도학 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현대 교육에서는 환경·윤리·창의적 글쓰기와 연결해 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실제로 자연가 구절을 현대적 해석과 비평 예시로 작성해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글을 활용한 고전 해석 및 비평 예시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자연가의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 문제 제시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자연의 자율성과 인간의 삶을 절로 살아가는 태도를 노래한 구절)

☞ 예시 답안 - 현대적 해석 및 비평

현대어 풀이

푸른 산은 저절로 푸르고, 맑은 물은 저절로 흐른다. 산과 물 사이에서 나 또한 저절로 살아간다.

비평

이 구절은 자연의 자율성과 인간의 삶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본다. 하서 김인후는 인간이 억지로 무엇을 꾸미거나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처럼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오늘날 환경 문제와도 연결된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태도 대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절로’라는 반복은 삶의 본질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현대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인위적 욕망을 반성하게 한다. 교육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율적 삶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 이렇게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글을 활용하면, 퇴계 이황의 도학적 글과는 또 다른 자연 친화적·자율적 삶의 철학을 현대 교육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구절을 바탕으로 현대판 소과 논술 문제 예시도 만들어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글을 활용한 현대판 소과 논술 문제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현대판 소과 논술 문제 (하서 김인후 글 활용)

문제

다음은 하서 김인후의 시조 자연가의 구절이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위 구절은 자연의 자율성과 인간의 삶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본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오늘날 환경 문제와 인간의 삶의 방식을 연결하여 600자 내외의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 예시 답안

하서 김인후의 자연가는 자연의 자율성과 인간의 삶을 ‘절로’라는 반복된 표현으로 노래한다. 이는 억지로 꾸미거나 강제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는 지구의 균형을 깨뜨리고,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 하서의 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성하게 한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에게 ‘절로’라는 삶의 가치, 즉 자율성과 조화의 중요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서, 인간의 삶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다. 따라서 하서 김인후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환경 위기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 이렇게 구성하면, 조선시대 소과의 한시 시험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면서도 하서 김인후의 철학을 오늘날의 문제의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논술 문제를 학생용 채점 기준(예: 내용, 논리, 표현력)까지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실까요?

예 좋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글을 활용한 현대판 소과 논술 문제 채점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내용·논리·표현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현대판 소과 논술 채점 기준 (예시)

평가 항목 배점 기준

내용 이해 30점 제시문(자연가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현대적 맥락(환경·삶의 방식)과 연결했는가

논리 전개 30점 문제의식 제기 → 근거 제시 → 결론 도출의 구조가 명확하며,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가

창의성·비평력 20점 단순 해석을 넘어 새로운 시각이나 비판적 성찰을 보여주었는가

표현력·문장력20점 문장이 매끄럽고 어휘가 적절하며,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총점: 100점

🔗 채점 예시 적용

우수 답안 (90점 이상) : 제시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환경 문제와 인간의 삶을 창의적으로 연결하며 논리적 구조가 탄탄한 글.

보통 답안 (70~89점) : 제시문 해석은 대체로 정확하나 현대적 적용이 다소 피상적이거나 논리 전개가 약한 글.

미흡 답안 (70점 이하) : 제시문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대적 의미와 연결하지 못한 글.

🔗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단순히 고전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 문제의식과 창의적 사고를 함께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학생 답안 예시(우수/보통/미흡)까지 작성해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글을 활용한 현대판 소과 논술 문제 채점 기준 적용 예시 답안을 세 가지 수준(우수/보통/미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문제 제시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자연의 자율성과 인간의 삶을 절로 살아가는 태도를 노래한 구절)

논술 주제

이 구절을 바탕으로, 오늘날 환경 문제와 인간의 삶의 방식을 연결하여 600자 내외의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 □ 답안 예시

1. 우수 답안 (90점 이상)

하서 김인후의 자연가는 자연의 자율성과 인간의 삶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본다. ‘절로’라는 반복은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는 지구의 균형을 깨뜨리고 기후 위기를 초래한다. 하서의 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성하게 한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조화의 중요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인간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다. 따라서 하서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환경

위기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 제시문 해석 정확, 현대적 적용 창의적, 논리 구조 탄탄

2. 보통 답안 (70~89점)

하서 김인후는 자연을 '절로'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는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것처럼 인간도 억지로 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줄이고 나무를 심는 것이 필요하다. 하서의 생각은 지금도 의미가 있다.

→ 제시문 해석은 대체로 정확하나 현대적 적용이 다소 단순, 논리 전개가 피상적

3. 미흡 답안 (70점 이하)

하서 김인후는 자연을 좋아했다. 산과 물이 절로 있다고 했다. 오늘날에도 자연은 중요하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

→ 제시문 해석이 불명확, 현대적 의미와 연결 부족, 논리 전개 미흡

▣ 채점 기준 반영

우수 답안: 내용·논리·창의성·표현력 모두 충족

보통 답안: 내용 이해는 있으나 논리와 창의성이 부족

미흡 답안: 단순 요약 수준, 비평력과 논리 전개 결여

☞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했을 때, 채점 기준에 따라 수준별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답안들을 실제 점수(예: 95점, 80점, 60점)로 구체적으로 매겨드릴까요?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로서 도학(道學)과 절의(節義)를 삶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를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단순히 옛 도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학(道學)의 현대적 적용

자기 수양과 평생 학습

도학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길을 찾는 공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평생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리적 판단 기준

도학은 인간의 도리를 강조했는데, 현대에서는 인공지능·환경·경제 등 복잡한 문제 속에서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책임

도학은 개인의 수양을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 공공선 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ㄸ 절의(節義)의 현대적 적용

정직과 원칙 준수

절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원칙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는 직장에서의 윤리, 사회적 정의, 법과 규범 준수로 연결됩니다.

정의로운 행동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는 태도는 절의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 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환경·사회적 정의

절의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을 넘어 사회적 정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 국제적 평화 추구 등이 그 예입니다.

☆ 정리

하서 선생의 도학과 절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학 → 자기 수양과 윤리적 기준 확립

절의 → 정의로운 행동과 사회적 책임 실천

즉, 현대 사회에서는 하서의 가르침을 윤리적 삶의 지침과 공동체적 책임 의식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대학생들을 위한 ‘하서 김인후식 삶의 지침 5계명’ 같은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서 김인후식 삶의 지침 5계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현대판 하서 김인후식 삶의 지침 5계명

배움은 끝이 없다

도학은 평생 학문과 자기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에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계발을 통해 지식과 인격을 함께 성장시켜야 합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절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원칙입니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압력보다 양심과 정의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라

도학은 개인의 수양을 공동체적 책임과 연결했습니다. 현대에서는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 봉사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라

절의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현대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차별, 환경 파괴 같은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절의의 실천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라

하서의 시문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삶, 생태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곧 도학과 절의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 이렇게 정리하면,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가르침은 단순히 옛 성리학적 도덕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윤리적 삶의 지침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5계명을 대학생·직장인·청소년 각각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실천 예시로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실까요?

예 좋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학생·직장인·청소년 각각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적용 예시를 정리해 드릴게요.

☞ 대학생을 위한 실천 지침

배움은 끝이 없다 → 전공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며 평생 학습의 태도를 기른다.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 부정행위나 편법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학문을 쌓는다.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라 → 동아리·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실천한다.

불의에 맞서라 → 캠퍼스 내 차별이나 불공정 문제에 목소리를 낸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라 → 환경 동아리 활동, 플라스틱 줄이기 등 작은 실천을 생활화한다.

☞ 직장인을 위한 실천 지침

배움은 끝이 없다 → 업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인문·윤리적 소양을 꾸준히 개발한다.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 회사 이익보다 윤리적 기준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게 일한다.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라 → 팀워크를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활동에 참여한다.

불의에 맞서라 → 직장 내 부당한 관행이나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개선을 요구한다.

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라 → 친환경 업무 습관(종이 절약,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다.

 청소년을 위한 실천 지침


배움은 끝이 없다 → 학교 공부뿐 아니라 독서·토론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습관을 기른다.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 친구 관계에서 거짓말이나 배신을 피하고, 정직을 지킨다.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라 → 학급·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과 배려를 배운다.

불의에 맞서라 → 학교 내 따돌림이나 불공정 상황에 용기 있게 대응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라 → 쓰레기 줄이기, 나무 심기, 환경 캠페인 참여 등 작은 실천을 생활화한다.

 이렇게 보면,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는 단순히 옛 성리학적 가치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윤리적 삶의 지침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판 하서 김인후 선언문” 같은 형식으로 멋지게 정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실까요?

예 좋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판 하서 김인후 선언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현대판 하서 김인후 선언문

1. 우리는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지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격을 완성하는 도구이다.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수양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평생 학습을 삶의 기본으로 삼는다.

2. 우리는 양심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이익과 권력보다 양심과 정의를 우선한다. 모든 판단과 선택은 도덕적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흔들림 없는 정직을 삶의 근본으로 삼는다.

3. 우리는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간다.

개인의 성취는 공동체의 행복과 연결되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서 행동한다.

4. 우리는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낸다.

차별과 불평등, 부당한 권력과 환경 파괴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쓴다.

5.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자연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 이 선언문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오늘날의 윤리적 삶·공동체적 책임·환경적 실천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혹시 원하시면, 이 선언문을 짧은 구호(슬로건) 형태로도 정리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 “양심으로 살고, 자연과 함께하라” 같은 식으로요.

예 좋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짧은 구호(슬로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언문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기 쉽게 압축한 형태입니다.

✽ 현대판 하서 김인후 슬로건 5선

“배움은 끝이 없다, 삶은 수양이다.”

“양심으로 판단하고, 정의로 행동하라.”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

“자연과 조화롭게, 지속가능하게 살아가자.”

☞ 이렇게 짧은 구호로 정리하면, 대학생·직장인·청소년 모두가 일상 속에서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이 슬로건을 포스터나 배너 디자인에 어울리는 형태로 더 간결하게 다듬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실까요?

② 과거시험 명칭과 책문 시행 요령에 관한 생각

장성고 송파법인 상임이사 이창운

생각 1 - 행사 명칭에 대한 의견

3가지 안 중 1안(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이 좋을 듯합니다. 1안의 문제점(지역인지도는 높으나 타 지역에서 이해도가 떨어져 홍보에 걸림돌로 작용)인 타 지역 이해도 부분을 오히려 이 행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필암서원과 하서 김인후 인지도나 지역 관광 문화 산업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생각 2 - 책문

1) 고교생 논술시험은 대입 논술시험과 연계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문학 강연 개최 필요 :

- 조선 시대 책문의 출제 성향과 이를 통해 조선왕조가 어떤 인재를 선발하려고 했는지

- 오늘날 대입 논술시험을 통해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려는지

- 다가오는 AI 시대에 미래 인재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인문학 강연 개최 :

1) 일시 : 과거시험 연계 개최

2) 대상 : 과거시험 참가자 학생 및 학부모

3) 강사 : 고려대 논술시험 출제 교수 혹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강사(철학 분야)

③ 행사명칭 통합에 관한 의견

한국학호남진흥원 나상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계획서를 보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계획서상 행사 명칭이 1안(문불여장성), 2안(필암서원), 3안(하서 김인후) 등 명칭이 복수로 제시되어 있으며,

최종 결정이 유보된 상태이고, 추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서 김인후'라는 인물 브랜드,
'필암서원'이라는 공간 브랜드,
'문불여장성'이라는 지역 브랜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3개의 안이 모두 포함된 통합 명칭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과 함께하는 하서 김인후 과거시험 재현"이라는 명칭을 제안합니다.

④ 과거 급제자 복식 재현 관련 아이디어

문화관광해설사 오미정

모당평생도, 옹방식 속 인물 복식 제안에서

기존 각 지역의 급제자 복식 재현 색과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식의 색과 톤이 많이 차이가 나서 색과 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양 인견에 색을 내는 것은 어떤 색이든 어렵지 않아요.

1. 칼라 정리 필요 :현재 각지역의 재현 칼라는 화학염이어서 너무 가벼워 보여요. 천연염색으로 재현하면 훨씬 무게감이 있지요. (디지털 카메라는 화학염과 천연염색 톤의 차이를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2. 복식 구성품 정리필요: 어사화 꽃은 복두, 녹포(공복), 흑각야자대, 흑화, 목홀까지
흑화는 (흑색 신발일까요?? 어느 선까지 준비해야..)
3. 어사화 문제 : 타지역 재현 물품 중 기성품을 사서 사용해서 각도가 없는 것인지?
4. 복식 톤은 개인적으로 제안자의 색과 톤이 좋지만 타지역 과 달라서 구설을 감수해야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5. 사령을 문화나루와 연계가 되고 있어서 제가 (농진청사업) 늘봄학교(1-2학년)19~20명을 선 비복 입혀 행사에 참여 가능 할지 타진해 보지요.
6. 걱정은 구입한 복두(기성품)와 수제 천연염색 한지와의 무게감(어울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부족한 부분은 토의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일을 보는데 어렵지 않게 좋은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화초 학생들과 어사화 만들 때 한지 천연염색과 공작놀이로 어사화 만들기 경험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장성 만들기에 앞장서 주신데 감사드려요.

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과거급제 재현행사 복식 제안

앞서 살펴본 과거급제 행사는 방방과 유가에 치중되어있으며, 급제자와 유가 속 인물의 복식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모당평생도》와 《담와평생도》의 삼일유가 장면을 토대로 급제자와 유가 속 인물의 올바른 복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당평생도》〈응방식〉속 인물의 복식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모당평생도》〈응방식〉속 인물 복식

인물	복식 구성
급제자	어사화를 꽃은 복두, 녹포(공복), 흑각야자대, 흑화, 목홀
홍패사령	흑립, 철릭, 세조대, 행전, 피혜, 홍패보
세악수	흑립, 철릭, 세조대, 행전, 피혜

사업계획서(안)를 검토해주신 자문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비고
1	산 양 회 및 필 압 서 원 관 계 자	김재수 이사장	010-2705-6395	sonamu509@naver.com	
2		김양수 도서관장	010-8899-6348	ys501024@naver.com	
3		양성모 상임이사	010-2601-6641	smyang21c@hanmail.net	
4		박래호 이사	010-6712-8881		
5		김용하 이사	010-2612-2103	gangchon1@hanmail.net	
6		김병기 이사	010-6712-3421	bgkimcnu@naver.com	
7		김동하 이사	010-8609-4334	yonwoonkim@nate.com	
8		이충원 이사	010-3627-1057	lcw47624@hanmail.net	
9		김상백 도유사	010-6660-2218	kimsb9887@naver.com	
10		김진산 부도유사	010-5096-0238	jinsan8593@daum.net	
11		김영수 총무유사	010-4154-0325	kimys2517@naver.com	
12	전 · 현 직 공 직 자	이상욱 前 장성군 행정복지국장	010-3632-1575	lso1575@naver.com	
13		변동강	010-3546-3546	bdg44@daum.net	
14		김정구	010-2998-6998	kwn6998@naver.com	
15		장성일 장성군 학예사	010-8612-1490	js721480@korea.kr	
16	역 사 전 문 가	김희대 前 전라남도 문화유산전문위원	010-4603-2343	kht1215@hanmail.net	
17		강대익 前 황룡면장	010-3633-5713	kd2333@hanmail.net	
18		이창운 송파재단(장성고) 상임 이사	010-7701-6820	oeoo76@naver.com	
19		나상필 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010-9966-9915	kamjabong@hiks.or.kr	
20		김태영	010-3114-7903	tykim@gist.ac.kr	
21		오미정	010-9860-5770	omj771@naver.com	
22		정경희	010-4038-8570	cf0998@hanmail.net	

(3) 산양회 1차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2026.3.5.)

공식적으로 논의된 안건

① 학술강연회 개최 및 학술소식지 발간

- 상반기 학술강연회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범위 내에서 3월에 개최
- 하반기 강연회는 과거시험 재현행사와 연계하여 “한국의 과거제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와 “왕조시대에 지방에서 시행한 과거시험의 실태에 관한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유관 기관·단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
 - 개최 시기 및 장소 : 2026년 10월 중, 필암서원 집성관 또는
장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공동주관 : 필암서원 산양회, 한국학 호남진흥원, 광주전남발전협의회
(호남진흥원-발표자 섭외, 광전협의회-세미나 예산 지원 협의 중)
 - 소요예산 : 13,300,000원
 - 주제 발표자 수당 및 원고료 1,100,000원× 3명=3,300,000원
 - 참석자 중식대 20,000원×200명=4,000,000원
 - 기념타올 제작 5,000원×200명=1,000,000원
 - 하서 선생 일대기 제작 배포 25,000원×200권=5,000,000원
(하서학술재단 학술연구비 지원금)
- ※ 장성문화원에서 2026.3월 중 발간 예정인 《하서 선생 오언절구 시집》 책자도 사전 확보하여 참석자에게 일대기와 함께 배포
- 《하서 도학과 문학》 42호는 3월에 통상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발간, 43호는 10월에 과거제도 연구 특집 기사를 게재한 특별호를 제작 배포

② 산양회 홈페이지 활용 극대화

① 산양회 홈페이지 구축 및 이용실태

- 의 의 :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위상에 걸맞게 2024년부터 산양회와 서원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차원의 자체 홈페이지를 보유

- 한국의 서원 9곳 중 5번째로 구축(소수서원·도산서원은 행정기관인 관리 사무소 홈페이지, 병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만 민간 홈페이지)

○ 이용실태 : 2024.6.6.부터 홈페이지 구축과 이용 면에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예상보다 빠른 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 달성

- 산양회보 및 하서 도학과 문학 내용을 빠짐없이 pdf 파일 아카이브 구축, 동영상도 상당한 분량의 아카이브 구축

○ 일반 공지사항, 하서도서관 게시판에 업로드한 콘텐츠 방문객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

- 지금이라도 네이버창에(다음, 구글도 포함) “필암서원 산양회”를 치거나 도메인 www.piramsanang.or.kr(홈페이지 주소)를 치면 접속 가능
- 개인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나 접속할 수 있음

② 과거시험 재현 행사홍보 및 응시원서 접수 창구를 홈페이지로 일원화

○ 과거시험 재현 행사 홍보 : 전남광주특별시 관내 (현 광주·전남 시도 관내) 고등학교 및 서원, 향교를 대상으로 대면 홍보와 함께 대중매체를 통한 언론홍보, 홈페이지·SNS를 통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

○ 응시원서 접수창구를 홈페이지로 일원화

- 응시원서 접수는 우편접수나 개별접수는 과다한 인력이 소요되어 소정의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으므로 기존 “필암서원 산양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개설 운영하는 등 기능을 보강하여 인터넷을 통한 접수만 허용
- 특정 시점에 원서 제출이 편중되어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1개월 내외의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원서를 접수, 사전에 이러한 일정을 미리 알려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

1차 수정사업계획 심의 때 임원 발언 요지(건의사항)

- 김병기 이사 : ① 과거시험 성적우수자로 뽑힌 응시생 작품의 수준 향상을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② 학생 급제자의 경우 시상금 이외에 다른 특전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 대학 입시에서의 어드밴티지 등 ③ 후원단체로 “전남대 명예교수회”와 같은 대학 관련 단체 검토 요망
- 김용하 이사 : ①한시 7언율시를 2시간 내에 작성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니 작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시험시간을 3~4시간으로 늘리는 등 적정 시간 책정 요망
② 서원, 향교의 유림 인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니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핸드폰을 통해 임시로 문자 접수한 후 응시 당일 정식 접수하는 방안 등)
③ 우리 지역 출신 한시 작가에게 자문하거나 심사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면 좋겠음 (예) 소암 김용숙 종친 등
- 김동하 이사 : ① 2시간 내에 7언율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함 ②시험 시간을 늘리거나 7언율시 대신 5언절구나 7언절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③전남대 재직하는 중국인 교수를 한시 부문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추천함
- 고달석 감사 : ① 광주고을 “향시”의 경우 금년 11월경 개최한다고 함
- 이충원 이사 : 3.13 장성향교 총회 시 과거시험 재현행사 홍보 시간 허용

文不如長城

성장 장성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행사

- 시험응시 : 2026.10.3.(토) 10:00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 강독(고전암기) : 사서삼경 중 선택, 전남광주특별시 거주 일반인
 - 한시 : 칠언율시, 전남광주특별시 거주 일반인
 - 책문(논술경시) : 시사문제 논술시험, 전남광주특별시 거주 고등학생
- 성적우수자 발표 : 10.8(목) 11:00 장성군청 홈페이지 등
- 시상·학술대회·축하행사 : 10.10(토) 10:00 필암서원, 장성역전~군청



- 주최/주관 : 장성군, 문불여장성 과거시험위원회, 필암서원 산양회
- 후원 :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문화원연합회,
성균관유도회 전남광주특별시지부, 한국학호남진흥원
-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www.piramsanang.or.kr (8.1~9.15)

뒷 표 지